제20회 안동권씨전국청장년 체육대회

경주청장년회 주관으로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려
내년에는 江陵, 2010년에는 靑松에서 열기로

▲ 안동권씨전국청장년체육대회의 입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 권승혁 대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안동권씨전국청년회 연합회가 주최하고 안동권씨경주청장년회가 주관하는 제20회 안동권씨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2008년 5월 4일 일요일에 경북 경주시 황성동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렸다. 대회의 구호는 '백만 권문의 화합단결, 하나된 힘으로 새역사를 창조하자'였다. 경주청장년회는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 권문權門의 위상을 확립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전국각처 친족과의 만남의 장으로 삼아 정의를 나누고 선대의 얼을 이어받아 되살리자는 취지를 표방하였다.

이번 대회는 본디 4월 27일로 예정되었으나 이 날이 청도淸道의 아시조 낭중공郞中公 춘향일과 맞물려 날짜를 조정해 물리게 되었다 하였다. 경주청장년회원들은 전일 운동장에 나와 밤 11시까지 행사준비에 바빴고 당일에도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에 미리 나와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집행부와 회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힘쓰며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전전긍긍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상을 깨고 구름이 볕을 가려주는 차일 역할을 하여 오히려 행사를 돕는 셈이 되었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자 단비가 내려, 모두들 날씨까지도 조상의 음우陰佑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각지역의 참가선수단은 강릉、광주光州、안동능곡회陵谷會、대구、마산창원、문경、밀양、부산、산청山淸、시흥始興、서울、안강安康、안동청년회、안양、영덕、영주、영천永川、울산、예천、원주、의성、제천、청송、합천청장년회에 개최지 경주청장년회까지 25팀에 달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입장식이 거행되었다. 권혁만씨와 권송현씨의 사회로 2만여명 수용 규모의 경주시민운동장에 고적대의 팡파레가 울리며 대회기가 앞서 들어오고 뒤이어 각청년회기를 든 기수단이 입장하였다. 이어 직1문에서 각 지역 선수단의 피켓을 든 선도자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25개 참가팀이 입장하여 트랙을 돌며 본부석을 지나 운동장에 차례로 정렬하였다. 그리고 농악대가 뒤를 따르면서 행사의 흥을 돋구는 가운데 개막식의 퍼포먼스가 연출되었다.

국민의례와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를 올리고 나서 대회장 권승혁씨가 개회선언을 하자 축포가 터졌다. 경주친목회장 권상윤씨가 내빈 소개를 하고 경주청년회 초대회장인 권승혁 대회장이 전차 대회를 개최한 안동청년회에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어 권승혁 대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권순국權純國 경주종친회장이 환영사를, 권정달權正達 대종회장의 격려사를, 권오을權五乙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였다.

개회식을 마치고 내빈과 대종회 및 각지역 종친회장 등은 본부석 아래에 주최측에서 마련한 막차幕次에서 다과를 들며 간담을 나누고 있었고, 각 참가선수단은 운동장 트랙 주위에 마련된 각자의 텐트로 가서 경기 출전에 대비했다. 경기는 기존에 하던 종목을 다소 변경하여 윷놀이와 자루들고오래버티기가 새로 채택되었고 꽃게줄다리기는 기존의 줄다리기를 변형시킨 것이며 400미터 계주는 예년의 것 그대로였다.

▲ 꽃게줄다리기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

▲ 전국청년회의 회장단회의가 열리고 있다.

본부석 반대편의 ABCD 4개 구역에서는 주심 1인과 부심 1인씩이 배치되어 윷놀이를 벌였고, 본부석 앞 트랙의 AB 2개 구역에서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씩이 배치되어 꽃게줄다리기를 벌였다. 한편 오후 1시부터는 운동장의 경기와 별도 기획으로 '운곡서원雲谷書院 투어 를 시작하여 중앙문앞에서 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희망자들이 버스를 타고 강동면 왕신리 운곡의 시조 태사공이 주벽主壁으로 봉향되고 있는 서원을 향해 이동하였다.

이윽고 본부석 하단에 있는 공간에서는 안동권씨전국청장년회의 회장단회의가 열렸다. 권덕룡權德龍 경주청장년회장은 체전준비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아 한때 대회개최권을 반납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토로하며 '앞으로의 대회는 어디서 하든 꼭 이렇게 크게 꾸미려고만 하지 말고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내실있고 청년회에 재정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데 주력하면서 각지역팀의 참가비를 인상하여 현실화하자고 제의하였다. 광주청년회장이 호남지역 광주에서의 대회 개최의사를 밝히자 모두가 광주는 언제나 개최순번 0순위라면서 내년의 강릉과 2010년 청송에 이어 2011년에 광주에서 열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또한 권덕용 회장은 대회 개최업무의 계속성과 전국청년회연합의 기능을 위해 연중 정기회의를 열도록 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 회의는 8, 9월중에 통지하여 적의한 장소에서 소집키로 하였다. 청년회연합의 회의는 매년 안동 능동재사의 춘추향사 전석 당회 뒤에 연2회로 열리고 있는 게 관례이다.

각지역의 선수단과 함께 온 응원단은 대개 가족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아이들은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나와 열기를 고취시키고 있었다. 각팀의 천막에서는 준비해온 지역특산의 먹거리를 이웃 천막과 나누어 먹으며 푸짐한 인심으로 친목을 다졌다. 이렇게 각 지역 청년회가 준비해온 음식과는 별도로 주최측에서는 800인분의 점심식사를 준비하였는데 이것이 모자랐다.

오후 2시부터는 행사 진행을 용역하는 이벤트회사에서 나온 전문 MC의 진행으로 자루들고오래버티기 경기가 벌어졌다. 한편 2시 30분부터는 각지역에서 1개팀씩 본부석 앞 무대에 나와 장기자랑을 하였으며, 기획행사로 대금연주와 기아나비츠 댄싱팀의 공연 및 벨리댄스 공연이 이어지고 경품추첨 행사가 벌어졌다. 행사와 경기 계획을 다 소화하고 나서는 오후 4시에 경기성적이 발표됨과 동시에 시상으로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꽃게줄다리기는 권만택 경주종친회장이 시상했는데 1위는 울산청장년회, 2위는 영주청장년회, 3위는 원주청장년회였다. 윷놀이는 1위가 강릉청년회, 2위가 예천, 3위가 서울인데 권학구 경주종친회 부회장이 시상했다. 자루들고오래버티기는 권재철 경주청년회 부회장 시상에 1위는 합천, 2위는 안동, 3위는 밀양청년회였다. 400미터계주는 권혁광 경주종친회 사무국장 시상에 1위

▲ 자루들고오래버티기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

▲ 대회를 축하하는 기획공연이 벌어지고 있다.